

지명의 유형 분류와 관리 방안

김순배* · 김영훈**

Classification and Maintenance of Geographical Names

Sun-Bae Kim* · YoungHoon Kim**

요약 : 지명은 언어적 요소로 구성된 음성 내지는 문자 언어이면서 동시에 지리적 현상이자 하나의 문화적 요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지명 유형 분류와 지명 관리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지명 유형 분류의 대안과 지명 관리 방안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지명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지명 유형 분류를 지명소, 언어적 변천, 그리고 경합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 지명 유형 분류를 토대로 현재 국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명 유형 분류의 실제와 한계를 《대한민국 국가지도집》(2007)의 지명 색인 분류를 사례로 살펴보았다. 끝으로 후부 지명소의 명명 대상과 전부 지명소의 명명 기반으로 구분하여 접근한 지명 유형 분류의 새로운 대안과 국가지명위원회 강화와 관련된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현재 지명 표준화에 밀려 소외되어 있는 경합 지명과 소지명들에 대한 행정적·제도적 차원의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함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지명, 지명소, 지명 유형 분류, 지명 관리 방안

Abstract : Geographical name is not only a spoken or written language that has been constructed as a linguistic element, but it is also a geographical phenomenon and a cultural element. Based upon this consciousnes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urrent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 systems of the geographical names in Korea and to propose a new alternative classification and maintenance of the geographical names. In particular, the paper suggests three categories for the type classification of the geographical names: morpheme, linguistic change, and contestation types. In tur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dex of the geographical names contained in *THE NATIONAL ATLAS OF KOREA* (2007) on the basis of the preceding classification types in order to unveil the practical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classification articulated in the national atlas. This paper also proposes a new classification of the geographical naming that reflects the divisions of front and back morpheme of geographical names. Finally, from the discussions with the reinforcement of *National Committee on Geographical Names*, this paper invokes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protection and systematical management of the contesting and unofficial small scaled geographical names that have been set apart from the current geographical name standardization.

Key Words : geographical names, morpheme of geographical name, classification of geographical names, maintenance of geographical names

*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시간강사(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ogeo@hanmail.net

**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is@knue.ac.kr

1. 서론

地名은 일정한 지리적 대상을 지칭하여 다른 대상과 구별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¹⁾ 이와 같은 지명의 지리적 기능은 단순히 대상을 지칭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한 사회적 주체의 아이덴티티(identity)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권력관계를 재현하기도 한다.

한편 지명은 그 자체가 언어적 요소로 구성된 음성 내지는 문자 언어이면서, 동시에 지리적 현상이자 하나의 문화적 요소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지명이 지닌 언어적이고 문화정치적인 특성이 지리적인 성격과 동등하게 취급될 때 지명의 본래 의미와 가치가 학문적인 수준에서 적실하게 포착될 수 있을 것이다.²⁾ 그 결과 지명의 조사와 수집, 학술적 연구에 있어서도 지명에 내재한 언어적, 지리적, 문화적 성격을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간학문적이고 다학문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행정적,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지명의 유형 분류와 관리 방식은 지명이 지닌 언어적이고 문화정치적인 측면이 간과된 채 기형적이고 도구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학술적인 차원에서 존중되어야 할 지명의 본래 의미와 기능, 그에 따른 적절한 지명의 유형 분류가 수행되지 못하였고 행정과 효용의 편의 차원에서 기계적으로 유형 분류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지명 유형 분류와 지명 관리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필자들은 새로운 지명 유형 분류를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한 지명의 체계적이고 일원적인 관리 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행 지명 유형 분류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유형 분류(자연지명, 인문지명, 행정지명, 해양지명)는 지난 The Korean Language Society(1967, 12)의 지명 유형 분류에 인접 국가와의 영해 문제가 부각되면서 해양지명이 도구적으로 추가된 것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유형 분류에 기초하고 있는 2007년 영문판 대한민국 국가 지도집은 당시 국내 지명 유형 분류의 연구 성과와 유형 분류의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필자들은

2007년판 국가 지도집에 수록된 지명 색인 유형 분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바로 현행 지명 유형 분류의 한계를 확인하고 새로운 대안 마련을 모색하는 기초적인 작업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본 논문은 우선 기존 지명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지명 유형 분류를 지명소(전부 지명소, 후부 지명소), 언어적 변천(표기 변화, 음운 변화, 이두식 지명), 그리고 경합(경합 지명, 표기 방식 통일 지명, 영역 확대 및 축소 지명)을 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지명 유형 분류의 대안 마련을 위해 검토할 만한 지명학계의 다양하고 유의미한 유형 분류들을 참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지명 유형 분류를 토대로 현재 국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명 유형 분류의 실제와 한계를 《THE NATIONAL ATLAS OF KOREA(대한민국 국가지도집)》(2007)의 지명 색인 유형 분류를 사례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후부 지명소의 명명 대상과 전부 지명소의 명명 기반으로 구분하여 접근한 지명 유형 분류의 새로운 대안과 국가지명위원회 기능의 강화와 관련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명 관리 방안을 살펴보았다.

2. 지명학 분야의 지명 유형 분류

1) 지명소에 따른 유형 분류

지리학계와 국어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명학 분야의 지명 유형 분류는 Table 1에 정리된 바와 같다. 지명학 분야의 지명 유형 분류는 우선 지명을 구성하는 기초적인 형태소, 즉 地名素(morpheme of geographical name)³⁾의 체계 및 구성에 따라 前接 요소(성격요소)/後部 요소(분류요소)(Lee, 1982), 接頭 지명소/接尾 지명소(Toh, 2003), 前部 요소(命名 有緣性)/後部 요소(지시 대상)(Kim, 2005), 前部 지명소(실질+문법형태소)/後部 지명소(실질 형태소)(Seong, 2006), 지명 표식부/단위부(Jo, 2002)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Kim, 2009, 69-72).

이들 분류 중 전부 지명소(전접요소, 성격요소, 접두

지명소, 전부요소, 실질+문법 형태소, 지명 표식부)는 지명의 명명 기반(명명 유연성)에 따라 다시 자연 지명, 지형 지명, 기후 관계 지명, 先後 관계 지명, 공간 관계 지명, 문화 지명, 산업 경제 지명, 동식물 지명 등으로 다양하게 유형 분류되었다.⁴⁾ 대체로 명명 대상과

관련된 후부 지명소(후부 요소, 분류 요소, 접미 지명소, 실질 형태소, 지명 단위부)는 市郡區邑面洞里 등의 행정구역명, 행정 단위 지명, 고을 이름 단위부, 자연 및 인문 조건 관계 지명, 민속 및 종교 관계 지명, 산천 지명 등으로 분류되었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geographical name types. 지명학 분야의 지명 유형 분류.

Classifiers	Classification criteria		Types
Zensho Eisuke (1935)			① Administration type ② Place and Topographical type ③ Public architecture type ④ Industrial and economic type ⑤ Animal and Plant type ⑥ Form and Shape type
The Korean Language Society (1967)			① Administration boundary name type ② Physical type ③ Artificial type
Lee (1971)	Subjects and documentation		① Mountain ② Valley ③ Pass ④ Rock and stone ⑤ Forest and plant ⑥ Hydrosphere ⑦ Plain ⑧ Topographical feature ⑨ Geographical environment ⑩ Position ⑪ Animal name ⑫ Natural resource and production ⑬ Relics and artifacts ⑭ Person's name ⑮ Religion and custom
Lee (1982)	Classification type	Language types	① Original Korean name ② Chinese name ③ Foreign name ④ Mixed name
		Subjects used in place name	Same classification with Lee (1971)
		Human settlement	① Human settlement name ② Toponym ③ Hydronym
		Ethnicity type	
		Period	
	Composition type	Syllables	① Monosyllable ② Disyllable ③ Trisyllable ④ Polysyllable
	Form combination	① Front-morpheme ② Back-morpheme	
Kim (1985)	Form analysis	System analysis	① Native word ② Chinese word ③ Mixed word
		Word composition	① Simple word ② Complex word
		Formation factor analysis	① Location ② Shape ③ Relics and artifacts ④ Animals ⑤ Plants ⑥ Thoughts ⑦ Legend/Folklore ⑧ Human ⑨ land state ⑩ Object ⑪ Water ⑫ The old and the new ⑬ Good years and bad ⑭ Geomancy
		Place name recreated	① Phoneme change ② Morphology change ③ Replacement relationship

Table 1. continued

Classifiers	Classification criteria		Types
Lee (1986)	Classification by Prefix		① Spatial relationship ② Climate relationship ③ Front and rear relationship ④ Scale/size relationship
	Classification by Suffix		① Nature physical condition ② Human condition ③ Folklore/Religion ④ Human physical structure ⑤ Direction
Gang (1997)	Use and Shape of land		① Place name of topography ② Place name of usage ③ Place name of comprehension
	Form cause		① Physical name ② Cultural name
Nam (2004)			① Mountain and plain related name ② Water and river related name ③ Cultural climate and spirit related name
Toh (2003)	Morphologic types		① Prefix name ② Suffix name
Kim (2005)	Nominal documentation		Forepart element (internal and external criteria)
	Designated element		Rearpart element
Seong (2006)	Substantial + grammatical morpheme	Functions to characterize and concrete general objects	Forepart morpheme of place name
	Substantial morpheme	General section expression of objects designated by place name	Rearpart morpheme of place name
Jo (2002)	Structure and scale parts	Name structure	① Part of speech ② Lexicology ③ Semantics ④ Phonology
		Name units	① Units of settlement scale ② Mountains and streams
	Motivation and methods of naming	Motivations of naming	① Socio-historical motivation ② Physical geographical motivation
		Methods of naming	① Intuitive and abstract method ② The old and new method ③ Old styled separation and combination methods ④ Restoration and abolition method ⑤ Overlapping and concealing method

특히 지리학계에서 이루어진 지명 유형 분류로서 Lee(1986)의 연구는 지명의 언어적 측면에 주목하여 지명어를 구성하는 형태소에 따라 前半語素(전부 지명소)와 後半語素(후부 지명소)를 각각 접두어와 접미어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Nam and Seo(2004)는

후부 지명소의 명명 대상에 따라 산지와 평야 관련 지명과 물·하천 관련 지명으로 분류하였고, 아울러 국어학적인 어원 연구의 성과를 인용하여 풍토·일 관련 지명을 나누었다. 지명이 지닌 언어적 측면을 감안하여 지명의 구성을 전부 지명소와 후부 지명소로 구분

한 이상의 지명학계 선행 연구들은 실질적인 지명의 유형 분류와 관리 방안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지명학계의 지명 유형 분류에 기초하여 마련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유형 분류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세 유형으로 구분된 국토지리정보원의 유형 분류는 현실의 행정적, 정치적 필요에 의해 지명학계, 특히 The Korean Language Society(1967, 12)의 지명 유형 분류에 특정 유형의 지명들을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국토지리정보원이 채택하고 있는 지명 유형 분류는 지명이 지시하는 지리적 대상, 즉 명명 대상에 한정하여 구분한 것이며, 지명 유형들 사이의 포함관계가 뒤섞여 있어 일정한 지명 유형 분류의 기준

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존 지명학계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유형 분류는 대체로 전부 지명소와 후부 지명소의 언어적, 지리적인 성격과 대상에 따라 구분된 것으로 전·후부 지명소별 특성과 지명 이용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변형을 수반하고 있다.

2) 언어적 변천에 따른 유형 분류

언어적 변천에 따른 유형 분류는 지명이 지닌 언어적 측면, 특히 언어적 변천에 주목하여 분류한 것으로 국어학계의 지명 연구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유형 분류이다. 이러한 유형 분류는 언중들에 의해 일상

Table 2. Classification of geographical name types in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유형 분류.

Classification	Categories	Types	Notes
General classification	1) Administration name	① Si-Gun-Gu ② Eup-Myeon-Dong ③ Village	Marine name is added in this classification, based on The Korean Language Society (1967, 12).
	2) Physical feature name	① Mountain name (Valley, Ridge, Rocks) ② Stream (River, Stream, Swamp, shore)	
	3) Marine name	① Marine geographical name ② Undersea feature name	
	4) Man-made name	① Parks name ② Historic place name ③ Street name ④ Other facility names	
Classification by Land shapes and uses of topographic surface	1) Topographic name	Classification by types of land shapes	This classification is related to the categories suggested by Kang (1997, 65-66). The names indicated by the classification are ambiguous and indirect.
	2) Usage name	Classification by uses of topographic surface	
	3) Comprehensive name	Classification by comprehensive characteristics of types later named	
Types of Primary formation factors	1) Physical topographic name	① Location and direction name ② Topographic name ③ Climate name ④ Soil name	This classification is related to the categories suggested by Kang (1997, 65-66). This classification is based on the stated documentation of place names and requires more detailed sub-structural classification with fore and rear name parts.
	2) Cultural name	① Social name ② Historical name ③ Economic name ④ Folk name ⑤ Ideological name	

Source: Adapted from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05, 7-8) and the note explanation is undertaken by the authors

언어생활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지명의 表記變化와 音韻變化, 그리고 이를 포함한 音借, 訓借, 訓音借, 받쳐적기법 등의 표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吏讀式表記의 지명들을 뜻한다(Kim, 2009, 72-86).

표기 한자의 변화를 고려한 '표기 변화 지명'은 고유 지명이나 漢字地名을 다른 한자로 取音, 取義, 取形하거나 표기자가 탈락, 치환되어 변천된 지명들을 말한다. 일례로 '公峯'(현 충남 공주시), '儒城'(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너븐달(光里)'(현 충남 논산시 광석면 광리) 등은 음차 표기로 변화된 전부 지명소('公', '儒', '光')를 표기자의 뜻(訓)을 중심으로 해석하거나 인식하면서 새로운 지명 인식이 발생하게 된 사례들이다. 이와 같은 표기 변화의 비의도적인 발생과는 달리 특정한 사회적 주체에 의해 표기 한자가 의도적으로 변경된 '美化地名'도 동일한 유형에 해당된다. 지명에 쓰인 특정한 표기 문자를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비동일시, disidentification)하여 다른 긍정적이고 좋다고 판단되는 한자로 미화하거나 雅化한 지명들이 이에 해당된다.

음운 변화가 표기에 반영되어 변천된 '음운 변화 지명'은 지명 인식의 다양성을 발생시켰다. 시대에 따른 지명의 음운 변화 결과는 지명 표기에 반영되어 새로운 지명 해석과 인식을 초래하였다[토흥리(土興里)통리]동리(桐里)東里]등이(현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봉산리)]. 이들 중 일부는 특정한 사회적 주체들에 의해 활용 및 변용되어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한자로 음운 변화를 표기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현 충남 청양군 청남면 아산리에 있는 '有禮'라는 지명은 그곳에 거주하는 유교적 소양을 지닌 士族들에 의해 '이불내(伊火川)이불래>이올래>이으래>유래'의 음운 변화 결과를 그들이 소유한 유교 이데올로기를 재현해 주는 '유례(有禮)로 표기한 것이다.

한자의 음(음차)과 훈(훈차, 훈음(훈음차)을 빌어 차차 표기한 '이두식 지명'은 한국적인 독특한 지명 표기 방식이다. 일례로 '넓은 산'이란 의미를 지닌 것으로 추정되는 '너븐달(仍火達)'(현 충남 청양군 정산면 덕성리)이란 지명은 '仍火'가 '넓은'을 뜻하는 '너블~내블~너벌'의 음차+훈음차 표기이며, '達'은 후부 지명소로서 '山'의 의미를 지닌다. 한편 이두식 지명 중

받쳐적기법(訓主音從法)에 의해 표기된 지명으로는 '버드내(柳等川)'(현 대전시 유등천 등), '바리고개(鉢里峙)'(현 대전시 서구 원정동 등), '흘림골(流林洞)'(현 충남 계룡시 남선면 남선리)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두식 지명은 후대로 오면서 지명소의 탈락과 변형 등이 심하여 그 원형이 지속되는 경우가 희박하다. 이러한 이두식 표기 지명은 인근에 거주하는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에 의해 자신들의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를 재현하거나 권력관계를 행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문화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3) 경합에 따른 유형 분류

競合(contestation)에 따른 지명의 유형 분류는 지명 경합과 영역 변동을 경험한 지명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형에는 지명소의 경합과 통일 양상에 따라 競合地名과 表記方式統一地名이 있으며, 후부 지명소의 영역 변화에 따라 領域擴大地名과 領域縮小地名이 포함된다(Kim, 2009, 159-171).

'경합 지명'이란 하나의 지리적 대상이나 장소가 두 가지 이상의 지명으로 지칭될 때, 그 지리적 대상이나 장소의 이름으로 專用되기 위해 서로 경합하는 지명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경합 지명에는 특히 불교 지명과 유교 지명 간의 경합[불당골/書堂洞(현 충남 청양군 청남면 아산리) 등]과 고유 지명과 유교 지명 간의 경합 사례(유래-伊火川/有禮-院村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경합 지명의 내부에는 사회적 주체들 사이에 갈등하는 권력 관계가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경합하는 지명들의 배후에 각각의 지명을 선호하고 후원하는 상이한 사회적 주체가 지명 인증으로 포진해 있을 경우 이러한 지명들 간의 경합 양상은 문화정치적인 관점에 의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특정한 사회적 주체들이 지명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구심력에 의해 동일한 표기자와 표기 방식으로 지명이 표준화되는 '표기 방식 통일 지명'이 있다. 표기 방식 통일 지명은 통일적인 표기 방식이 작동되는 지리적 스케일에 따라 국가적, 지역적, 국지적 스케일로 구분된다.⁵⁾ 경합 지명과 표기 방식 통일 지명의 생성과 변천에는 특정한 사회적 주체의 권력관계가 개입되기도

하며, 지배적인 아이덴티티나 이데올로기가 교체될 경우 경합의 우열과 표기 방식의 특성이 변형되기도 한다.⁶⁾

지명은 후부 지명소가 지칭하는 행정 단위(시군구읍면동리), 즉 지명 영역의 변화에 따라 ‘영역 확대 지명’ [論山里(논뢰)]論山市, 窺岩里]부여군 窺岩面 등]과 ‘영역 축소 지명’ [南扶餘(국호)>扶餘郡 扶餘邑, 德恩縣>논산시 가야곡면 삼정리 德恩堂, 노성현 豆寺面>노성면 豆寺里 등]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이 지명 영역이 확장되거나 축소된 이면에는 내부적으로 그곳에 거주하던 사회적 주체들의 권력관계가 해당 지역의 산업 경제 및 사회 문화의 급속한 성장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발생한 경우가 많다. 영역 확장 지명들은 행정 구역 개편과 통폐합을 계기로 타 지명보다 지명 영역의 중심성이 강하고 우세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명에 거주하거나 연고를 가진 사회적 주체들이 중앙 및 지방 행정 기관에 진정과 로비 등의 권력관계를 행사하면서 지명 영역이 확대되었다. 특정한 지명의 중심성 확대와 그곳에 거주하는 사회적 주체가 행사한 권력관계는 지명 영역의 확장을 초래하였고, 동시에 그러한 중심성과 권력에 밀려 지명 영역이 축소된 스케일 하강(scaling down) 지명도 양산하게 되었다.

그런데 후부 지명소의 영역 변화는 단순한 지명 표기의 변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 변동에 작용한 사회적 주체의 권력관계가 바뀌었음을 뜻한다. 지명 영역의 변화에는 지명을 둘러싼 사회적 주체들 간의 문화전쟁과 일정한 영역을 자기의 것으로 차지하기 위한 영역 싸움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정치적인 속성이 담겨 있다.

앞서 살펴본 전부 지명소(명명 기반)와 언어적 변천 및 경합과 관련된 지명 유형 분류는 표면적으로 볼 때 지명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간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들은 기존에 이루어진 지명 유형 분류, 즉 자연지명, 인문지명, 행정지명, 해양지명 등의 생성과 변천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여 한국 지명을 다면적이고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학술적인 기초적 분류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특히 국가 기관에서 마련한 지명 유형 분류의 대부분은 지명학적

의 연구 성과를 소홀히 한 채 현실적인 행정적, 정치적 지명 활용과 관련된 도구적인 지명 유형 분류를 해왔고, 이에 따라 학술적인 지명 유형 분류와는 다른 포함 관계가 뒤섞인 분류로 확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지명의 순수한 학술적 차원을 고려한 유형 분류는 앞으로 지명 관리의 심층화와 선진화, 나아가 새로운 지명의 제정과 변경 시 고려할 수 있는 포괄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필요한 선결 조건이다.

3. 지명 유형 분류의 실재: 《국가지도집》 지명 색인 유형을 사례로

이상의 지명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지명 유형 분류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로 하여 실제 우리나라의 정부 산하 행정 기관 및 학술 연구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명 유형 분류의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나라의 각종 지도 제작 및 지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지명 유형 분류와 관리의 체계화와 표준화를 위해 각종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토 포털의 지명 정보 서비스(<http://www.land.go.kr/landName>)는 ‘우리 국토의 지명’이란 이름으로 행정 지명(지역-시/군/구-읍/면/동-지명)을 대분류로 하여 지명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지명 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명의 유형 분류는 대체로 국토지리정보원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지명 유형을 크게 행정지명, 자연지명, 인문지명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부 산하 기관에서 시행 중인 지명 유형 분류의 사례 외에 순수한 학술 연구 기관에서 수행한 지명 유형 분류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시스템(<http://www.atlas.korea.org/historymap>)이 있다.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시스템에서 구분한 지명 유형 분류는 그 분류의 간격을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유형 분류에 두고 있다. 우선 대분류로서 행정지명, 자연지명, 인문지명으로 나누고, 조선시대 지리 정보를 제공하는 본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여 행정지명의 중분류에는 행정(조선)과 행정(현재)으로 구분하였다. 자연지명의 중분류에는 산지, 고개, 하천, 평야, 해안, 泉井, 기타를 두고, 인문지명의 중분류로는 취락, 경제, 교통, 군사, 문화, 민속, 기타의 항목으로 나누었다.

두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행 지명 유형 분류의 대부분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분한 것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마침 지난 2009년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2007년에 이어 영문판 대한민국 국가 지도집 발간을 위한 지명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영문 지명록 발간과 함께 지명 유형 분류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었으며, 본 논문도 이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것이다. 한 국가의 지도집을 발간하기 위해서는 지도에 수록될 지명에 대한 체계적인 유형 분류가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필자들은 기존에 이루어진 지명 유형 분류에 대한 대표적인 성과와 분류 경향이 2007년도에 발간된 국가 지도집의 지명 유형 분류에 담겨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 국가 지도집에 수록된 지명 유형 분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새로운 대안 마련을 모색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과거에 이루어진 지명 유형 분류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여 지명 활용의 현실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지명 자체가 지닌 지리적이고 언어적인 학술적 특성까지 고려한 새로운 유형 분류의 대안을 찾기 위해 지난 2007년에 간행된 대한민국 국가 지도집에 실린 지명 분류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1) 《국가지도집》의 지명 유형 분류 현황

현재 《THE NATIONAL ATLAS OF KOREA(대한민국 국가지도집)》(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07)[이하 《NATIONAL ATLAS(국가지도집)》]에 수록된 지명 색인 분류 유형은 The Korean Language Society(1967, 12; 1974, 1-2)의 지명 분류, 특히 지명의 명명 대상을 담고 있는 후부 지명소의 분류에 기초한 것이다. 우선 ‘행정 지명’, ‘자연 지명’, ‘인문 지명’, ‘기타’로 대분류한 후 그 하위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12 유형을 지도집의 색인 목록에 명시하고 있다(Table 3).

지도집에 수록된 지명 색인 분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지명’에 포함된 ‘Administrative Districts(행정구역)’ 분류 유형에는 후부 지명소가 지시하는 행정 구역의 단위에 따라 다시 ‘Metropolitan City · Do’, ‘Si(City)’, ‘Gun(County)’, ‘Gu(District)’, ‘Eup(Town)’, ‘Dong · Ri’로 하위분류되어 있다. 이 행정구역에 따른 분류 유형은 가장 많은 수의 지명을 포함하면서 지명 색인 분류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자연 지명’에 포함된 소분류의 지명 리스트에는 지명의 명명 대상을 제공하고 있는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Mountain Ranges · Mountain(산맥 · 산)’, ‘Bay · Stream · Lake · Reservoir(만 · 하천 · 호수 · 저수지)’, ‘Peninsular · Islands · Island(반도 · 군도 · 섬)’의 세 가지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인문지명’에 해당되는 소분류에는 ‘Temple(절 · 사찰)’, ‘Expressway · Interchange(고속도로 · 인터체인지)’, ‘Railroad · Station(철로 · 역)’, ‘Beach(해수욕장)’, ‘Lighthouse(등대)’, ‘Place of interest(명승지)’, ‘Other Tourist Attractions(기타 관광 명소)’로 구분되어 있다. ‘인문 지명’의 소분류 유형은 대체로 도로, 철도, 해운 등과 관련된 교통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광업과 관련된 역사 유적, 명승지, 사찰 등도 있다. 이들 11 유형의 소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지명들은 ‘Others(기타)’로 구분하여 분류되어 있다.

2) 《국가지도집》 지명 유형 분류의 문제점

《국가지도집》의 지명 색인 분류 유형은 구성과 분류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우선 지명 색인 분류 유형을 기초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첫째, 색인 분류 유형의 대분류에 해당되는 ‘행정 지명’, ‘자연 지명’, ‘인문 지명’이 지명 색인 분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소분류된 유형들이 어느 대분류에 포함된 유형인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없다. 둘째, 동일한 지명이 여러 소분류 유형들에 중복되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중복 분포는 소분류의 과정에서 명확하고 일정한 기준이 적용

Table 3. Classification types of geographical name indices in *National Atlas*. 《국가지도집》의 지명 색인 분류 유형.

Categorical classification	Element classification	Notes
Administrative name	1) Administrative Districts	④ Some Gu (District) names are required to describe with upper administrative district name such as Buk-gu (Busan-si) because there are several same direction geographical name that are different location (e.g. five Dong-gu, six Nam-gu names). ⑤ Metropolitan City and Eup (Town) also need 'Si' and 'eup' names. ⑥ Same Dong and Ri names expressing at different location are described with upper administrative district name.
	① Metropolitan City · Do	
	② Si (City)	
	③ Gun (County)	
	④ Gu (District)	
	⑤ Eup (Town)	
Physical geographical name	2) Mountain Ranges · Mountain : ~bong(봉), ~san(산), ~sanmaek(산맥), ~dae(대), ~nyeong(령), ~gowon(고원)	All elements of the Physical geographical name are required to be reclassified with more detailed criteria. 3) Bay · Stream · Lake · Reservoir
	3) '~sudo' name needs to be moved to 10). : ~man · ~Bay(만), ~gang(강), ~Reservoir(저수지), ~ho(호), ~cheon(천), ~po(포), ~ji(지), ~Sea · ~hae(해), ~sudo(수도), ~Strait(협)	
	4) Peninsular · Islands · Island : ~seom(섬), ~do(도), ~gundo(Is.)(군도), ~gak(Galmagak)(21E1), ~gari(Geomeungari)(29C3), ~got(곶), ~dan(Musudan)(19C2), ~beol(Seomeopbeol)(25C1), ~ji(Seomeonugi)(29C2)	
	5) Temple : ~sa(사), ~am(암)	
Human geographical name	6) Expressway · Interchange : ~Expressway(고속도로), ~Jct(분기점), Ansan(~인터체인지), Airport entrance, Airport town square,	5) 'Temple' and 8) 'Beach' elements need to be moved to element 10 in which the order should be placed as road, rail, marine, place of interest. Private and commercial tourist and resort company sites are included in 11) Other Tourist Attractions section which restricts to public and national attraction site section. The private and commercial sites should be reallocated into adequate section in next version.
	7) Railroad · Station : Aengnam(~역), ~Line(선), Incheon Int'l Airport(~공항)	
	8) Beach : ~Beach(~해수욕장)	
	9) Lighthouse : ~Lighthouse(~등대)	
	10) Place of interest : ~nu(루), ~gul · ~cave(굴 · 동굴), ~Falls(폭포), ~rim(림), ~jeong(정), ~gang(강), ~seong(성) ~Royal Tomb(왕릉)	
	11) Other Tourist Attractions : ~Resort(리조트), ~Spa(온천), Bears Town, ~National Park(국립공원), ~Folk Village(민속마을)	
	12) Others : ~Tide Embankment(방조제), ~Tunnel(터널), ~Airport(공항), ~Bridge(대교), ~Mine(광산), ~pyeongya(plain)(평야), ~Estuary Dam(하구언) ~jungseokgwang(중석광)	
Others	The title, 'Others', needs to be changed to 'Other Famous Architecture'. The contents of ~Airport are repeated with element 7). '~pyeongya (plain)' needs to be moved to element 2) in physical geographical name.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연 지명'의 소분류 유형에 일정한 분류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한국의 '자연 지명'은 대부분 해당 지명이 통용되고 있는 장소의 지형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해당 국가지도집에 수록된 자연지명의 대부분이 지형과 관련된 것임을 감안하여 지형의 종류에 따라 '자연 지명'을 분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하여 기존의 '자연 지명'의 소분류를 지형학계의 보편적인 지형 분류에 따라 '산지·평야 지명', '하천 지명', '해안 지명'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그 밖에 지명 색인 분류 유형의 구체적인 하위분류와 로마자 표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세부적인 오류나 한계는 Table 3의 비교 항목에 제시된 바와 같다.

'Administrative Districts(행정구역)' 분류에 포함된 Gu(District) 유형에는 방위지명인 Buk-gu(북구)가 5개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그 지명이 어느 도시의 '북구' 인가를 지명 색인에서 확인할 수 없다. 이와 동일한 사례는 Dong-gu(6개), Seo-gu(5개), Nam-gu(6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지명에 상위 행정 구역명을 병기해 주어야 한다[예: Buk-gu(Busan-si)]. 또한 Dong·Ri 유형에도 동일한 동리 지명이 분포(Allak-ri가 2개)하고 있으므로 상위 행정 구역명을 병기하여 혼동을 피해야 할 것이다.

Metropolitan City(특별시·광역시)와 Eup (Town) 유형에 포함된 지명에 각각 행정 단위 명칭인 'si'와 'eup(읍)'이 빠져 있다. 다른 행정 구역 유형의 지명들에도 'Do', 'Si', 'Gun', 'Gu', 'Dong·Ri'가 병기되어 있으므로 이들 유형에도 'si'와 'eup'을 추가해 주어야 할 것이다(예: Busan ⇒ Busan-si, Aewol ⇒ Aewol-eup 등).

세부적인 지명 분류에 몇 가지 수정할 점이 있다. 즉 '자연 지명'의 소분류 3)에 포함되어 있는 '~sudo(한려수도)' 항목, '인문 지명'의 소분류에 포함된 5) 'Temple(절·사찰)'과 8) 'Beach(해수욕장)' 항목을 '인문 지명'의 소분류인 10) 명승지로 옮겨야 할 것이다. 또한 '기타'에 포함된 '~pyeongya (plain)(평야)'를 '자연 지명'의 '산지·평야 지명'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지명 색인 분류 유형의 마지막 항목인 '기타'를 '인문 지명'에 포함시켜 그 명칭을 '기타 인공 건축물'로 변경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타 인공 건축물'의 지명을 앞선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인공 건축물로 한정하고, 그 나머지 지명은 다른 유형에 포함시켜야 한다.

'인문 지명'의 11) 'Other Tourist Attractions (기타 관광 명소)'에는 기업이 운영하는 사적인 관광 업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관광 명소의 선정과 수록에는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국가지도집》 지명 유형 분류의 개선안

《국가지도집》에 수록된 지명 색인 분류 유형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명 유형 분류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지명 색인 분류 유형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토대로 새로운 지명 색인의 분류 유형과 표기 방식을 구성해 보았다.⁷⁾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존 지명 색인의 표기 방식을 개선하여 마련한 새로운 지명 색인 표기 방식은 국가지도집의 주요 이용자가 외국인인 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즉 외국인 이용자가 한국 지명을 빠르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우선 전체 지명을 알파벳 순서(A~Z)로 나열하였

Table 4. An example of index classification of geographical name proposed for next *National Atlas*.
(《국가지도집》 지명 색인 분류의 개선안 예시.)

Geographical name (A~Z)	Classification types	Index
Ansan	Interchange	25C1
Cheongju-si	City	25D2, 26A2
Hangang	River · Stream	21D3

Table 5. An example of type classification of geographical names proposed for next *National Atlas*.
(국가지도집) 지명 유형 분류의 개선안.

Categorical classification		Element classification
Administrative Place-names	Administrative districts	* Metropolitan City · Province * City * County * District * Town * Village
Physical Place-names	Mountain and plains	* Mountain: ~bong(봉), ~san(산), ~nyeong(령) * Mountain Ranges: ~sanmaek(산맥) * Plateau: ~gowon(고원), ~dae(대) * Plain: ~pyeongya(평야)
	River and stream	* River · Stream: ~gang(강), ~cheon(천), ~po(포) * Lake: ~ho(호), ~ji(지) * Reservoir: ~Reservoir(저수지)
	Coast and sea	* Bay: ~man · ~Bay(만) * Peninsular · Cape: ~got(곶) * Strait: ~Strait(협) * Islands · Island : ~seom(섬), ~do(도), ~gundo(Is.) (군도) * Sea: ~Sea · ~hae(해)
Human Place-names	Road	* Expressway: ~Expressway(고속도로) * Interchange: Ansan(~인터체인지), ~Jct(분기점)
	Rail	* Railroad · Railway: ~Line(선) * Railway Station: Aengnam(~역)
	Airport	* Airport: ~Airport(공항), Airport entrance, Airport town square
	Maritime	* Lighthouse: ~Lighthouse(~등대)
	Attraction	* Place of interest · Sights : ~nu(루), ~gul · ~cave(굴 · 동굴), ~Falls(폭포), ~rim(림), ~jeong(정), ~seong(성), ~Royal Tomb(왕릉), ~sудо(한려수도), ~Beach(해수욕장), ~Resort(리조트), ~Spa(온천), Bears Town, ~National Park(국립공원), ~Folk Village(민속마을), Temple(절 · 사찰)[~sa(사), ~am(암)] * Other Architecture : ~Tide Embankment(방조제), ~Estuary Dam(하구언), ~Tunnel(터널), ~Bridge(대교), ~Mine(광산), ~jungseokgwang(중석광)

다. 나열된 각각의 지명들에는 해당 지명의 분류 유형 명칭을 병기하고, 마지막에 해당 지명이 수록된 페이지와 위치 정보를 기입하는 방식이다. 특히 해당 지명이 포함된 색인 분류 유형은 일정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기존 지명 색인 분류 유형을 개선하여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인 분류 유형은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개선된 지명 색인 분류 유형은 대분류 유형과 소분류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앞서 제시된 새로운 지명

색인 표기 방식의 '색인 분류 유형' 항목에는 28개의 '색인 소분류 유형'의 명칭이 기록된다. 그러므로 지명 색인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Table 5를 지명 색인의 첫머리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지명 색인 분류 유형을 기존 분류 유형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선된 분류 유형은 지명의 대분류에 있어 기존의 분류 유형을 계승하고 있다. '행정 지명', '자연 지명', '인문 지명'

으로 구성된 새로운 대분류는 기존의 대분류에서 '기타' 유형을 제외하여 구성한 것이다. 제외된 '기타' 유형은 일정한 지명 재분류를 통해 '인문 지명'의 '명소' 유형으로 이동시켰다. '행정 지명'은 기존의 대분류 및 소분류 유형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다만 앞서 제시한 기존 지명 색인 분류 유형의 문제점에서 언급한 일부 중복되는 동일 지명들에 대한 개선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새로운 지명 색인 표기의 '지명(A~Z)' 항목에 중복되는 동일 지명의 상위 행정 구역명을 괄호로 병기해 주어야 한다[예: Buk-gu(Busan-si), Buk-gu(Kwangju-si) 등].

'자연지명'은 지형의 유형에 따라 '산지·평야 지명', '하천 지명', '해안 지명'으로 구분한 후, 하위 소분류로서 'Mountain' 등을 포함한 13개의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인문 지명'은 《국가지도집》에 수록된 인문 지명들이 대부분 교통과 관련된 것을 고려하여 '도로 교통', '철도 교통', '항공 교통', '해상 교통'으로 구분하여 해당 지명들을 재분류하였다. 기존 분류 유형에서 대분류로 구분되었던 'Others(기타)' 유형을 'Other Architecture(기타 인공 건축물)'로 정리하여 '인문 지명'의 '명소' 유형에 포함시켰다. 또한 기존 분류 유형의 'Place of interest(명승지)'와 'Other Tourist Attractions(기타 관광 명소)'를 합쳐 '명소' 유형 내의 'Place of interest·Sights(명승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기존 'Temple(절·사찰)' 항목은 한국의 사찰들이 대부분 명승지 혹은 관광지과 관련되어 있어 '인문 지명'의 '명소' - '명승지' 유형 내에 포함시켜 분류하였다.

4. 지명 유형 분류의 대안과 관리 방안

1) 지명 유형 분류의 대안

앞서 검토한 《국가지도집》 지명 색인의 유형 분류는 지도집에 기입될 제한된 지명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분류 대상의 수와 종류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현재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모

든 종류의 지명들을 효율적이고 학술적인 기준에 의해 분류하는 대안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필자들은 지명의 명명 대상(후부 지명소)과 명명 기반(전부 지명소, 명명 유연성)이라는 새로운 분류 기준을 살펴보았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명의 표준화 방안⁹⁾과 일련의 지명 관련 과제들은 대체로 지명을 행정 지명, 자연 지명, 해양 지명, 인문(공) 지명 등으로 유형 분류하고 있다.⁹⁾ 이 같은 유형 분류는 주로 지명이 지칭하고 있는 지리적 대상, 즉 명명 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명명 대상으로 지명을 유형 분류했다는 것은 바로 지명의 후부 지명소가 지닌 유형에 따라 분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후부 지명소에 자리한 시·군·구·읍·면·동·리의 행정 구역 명칭으로 구분한 행정 지명, 강·포구·산·고개 등의 이름에 붙여진 자연 지명, 해양·해협·만·수로 등과 礁·堆·해저협곡·해저분지·해저산 등의 해저 지형에 명명된 해양 지명, 행정 지명을 제외한 인공의 구역과 시설 등에 붙여진 인문(인공) 지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지명에 대한 행정적, 법적, 제도적 관리 또한 지명 업무의 행정적 편의와 관리의 효율성만을 강조해 자연 지명은 측량법, 행정 지명은 지방자치법, 해양 지명은 수로업무법 등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그 소관 부처는 각각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로 분산되어 있다(Yang and Jung, 2006, 74-85).¹⁰⁾ 이로 인하여 지명에 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접근과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09년 12월 10일부터 기존의 측량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측량 통합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그 결과 자연 지명과 해양 지명의 행정적, 법적 관리가 일원화 되었다.¹¹⁾ 그러나 아직도 행정 지명에 대한 관리가 자연 지명과 해양 지명과 분리되어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지명의 유형 분류에 대한 행정적이고 학술적인 법적 규정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명 관리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¹²⁾

지명이 지닌 본래의 의미와 기능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유형 분류와 분산된 관리 체계는 일정한 제고와 개선의 필요성을 안고 있다. 그 이유는 국토를 분할 구획

한 경계를 일컫는 행정 지명은 그것이 지닌 인위적인 특성으로 인해 인문 지명의 하위분류임에 틀림없다. 해양 지명 또한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안 및 해저 지형에 붙여진 이름으로 그 분류에 있어 자연 지명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행정적·정치적 목적에 의한 지명 활용의 우위성과 행정적 편의, 그리고 관리의 효율성만을 우선시 하여 지명이 지닌 고유한 유형 분류에서 벗어난 기형적인 분류가 사용되고 있다. 이에 근거한 행정적, 제도적, 법적인 지명 관리와 업무 절차가 지명 본래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근본적이고 학술적인 고찰 없이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재의 지명 유형 분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동시에 지명의 행정적·제도적 활용의 효

율성을 감안한 새로운 유형 분류와 지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지명은 명명 대상(후부 지명소)과 명명 기반(명명 유연성, 전부 지명소)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명명 대상(후부 지명소)에 따른 지명의 유형 분류는 다시 자연 지명과 인문 지명으로 하위분류된다. 자연 지명에는 지형 지명(산지 지명, 평야 지명, 하천 지명 등)과 해양 지명(해양 이름, 해안 지명, 해저 지명 등) 등이 있고, 인문 지명에는 행정 지명과 인공 지명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둘째, 명명 기반(전부 지명소)에 따른 유형 분류는 지명을 구성하는 지명소 중 전부 지명소가 지닌 성격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전자와 동일하게 다시 자연 지

Table 6. An alternative of type classification of geographical names. 지명 유형 분류의 대안.

Classification criteria	Types		
Object of naming (Rear-name parts)	Physical geographical name	Topographic name	① Mountain name ② Plain name ③ River and stream name
		Maritime name	① Maritime name ② Seashore name ③ Submarine name
	Human geographical name	Administrative district name	Si-Gun-Gu-Eup-Myeon-Dong-Ri names
		Man-made name	① Park name ② Historical remains and site name ③ Street name ④ Other facility name
Cause of naming (Fore-name parts)	Physical geographical name	Topographic related name	Topographic features
		Climate related name	Climate features
		Vegetation related name	Vegetation features
		Soil related name	Soil features
		Direction related name	Direction and position features
	Human geographical name	Social and ideological name	① Family name ② Historical administrative district name ③ Confucian name ④ Buddhist name ⑤ Geomancy name ⑥ Moderns name
		History reflected	① Historical and legend reflected name ② Japanese styled name
		Economy reflected name	① Industrial name ② Commercial name
Plural/contesting geographical name	When the same geographical feature or location is designated with two or more geographical names, these designated names are considered as plural or contesting geographical names.		

명과 인문 지명으로 하위분류될 수 있다. 자연 지명에는 지형 지명, 기후 지명, 식생 지명, 토양 지명, 방위(위치)지명 등이 포함되고 인문 지명은 사회 이념적 지명(성씨 지명, 군현명 표기 지명, 유교 지명, 불교 지명, 풍수 지명, 근대적 지명 등), 역사적 지명(역사 및 전설 지명, 일본식 지명 등),¹³⁾ 경제적 지명(산업 지명, 상업 지명)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Table 6).

대체로 명명 대상에 따른 지명의 유형 분류는 지명의 현실적인 이용과 관련된 행정적, 제도적, 법적인 조사와 수집, 그리고 관리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이다. 이에 반해 전부 지명소의 명명 기반에 따른 지명의 유형 분류는 학술적 차원의 지명 조사와 수집, 그리고 새로운 지명의 제정과 기존 지명의 변경과 같은 심층적인 지명 관리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지명 관리의 개선 방안

명명 대상에 따른 지명의 유형 분류는 현재 국가 수

준의 지명 유형 분류를 지명의 본래 의미와 기능에 따라 재조정할 것으로, 그 행정적, 법적인 관리에 있어서도 일정한 개선이 필요하다. 2009년 12월 새로운 측량 통합법이 시행되어 국토해양부 산하에 ‘국가지명위원회’가 신설되었고, 자연 지명과 해양 지명의 통합 관리가 실현되었으나, 현행 지명의 업무와 관리는 여전히 행정 지명, 자연 지명(해양 지명), 인공 지명 등에 따라 각각 소관 부처와 관계 법령이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명 분류 체계에 있어 지명 분류의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 행정 부처 간 명확한 업무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모든 지명을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명 관리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있어 왔다(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05, 55). 한편 지명 업무 및 관리 체계의 일원화는 지명의 국제 표준화를 위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결되어야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현재 국토지리정보원 등 관련 정부 기관에서는 지명 관리 체계의 일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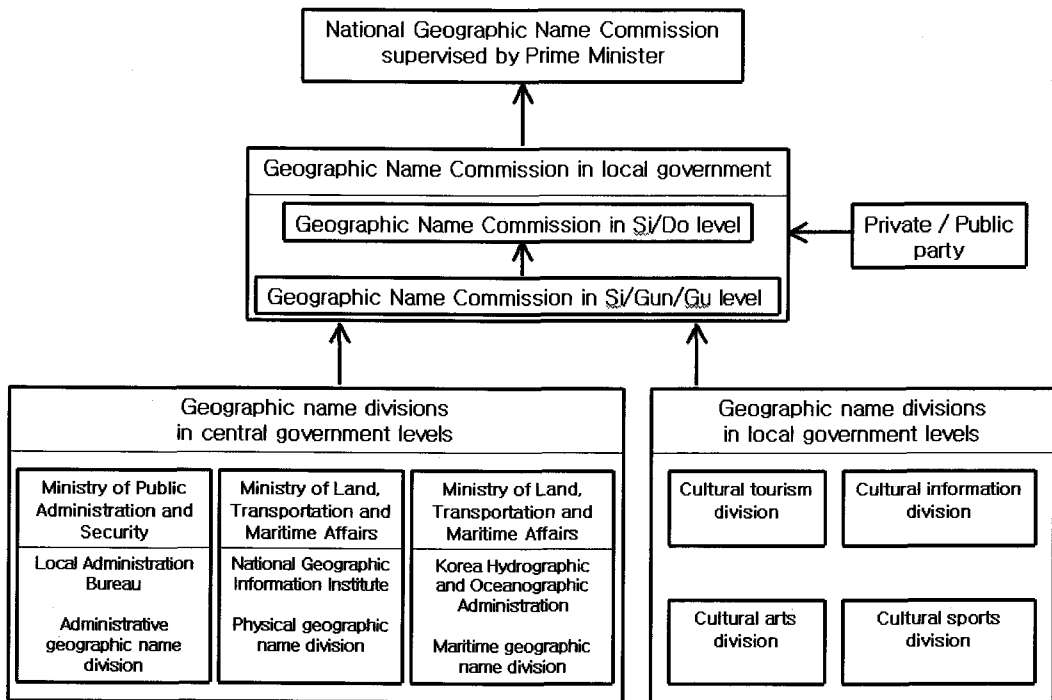


Figure 1. Proposal for improving geographic name management structure within government organization. 지명 관리의 개선 방안.

와 통합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지명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관리 및 통합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지명과 관련된 모든 법령의 조항에 해당 지명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 유형 분류를 명시해야 한다. 둘째, 현재 각 정부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지명 관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로서 현행 국가지명위원회의 행정적, 법적 위상을 격상시키고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Figure 1). 영국 및 독일에 존재하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사례에 비추어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지명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부서의 지명 업무를 통할 및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의 정부 부처에서 담당하던 행정적, 정치적 필요성과 사용 빈도가 높은 지명들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와 관리는 현행의 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지명의 제정과 변경을 심의, 결정하던 기구들(지방 지명위원회 제외)을 폐지하고 담당 지명의 명칭을 부여한 행정 지명과(계)(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연 지명과(계)(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해양 지명과(계)(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등의 부서를 신설한다. 여기에서 보고된 지명의 제정 및 변경 건은 지방 정부(현치 기초자치단체 포함) 및 일반 개인과 단체에서 제기한 건들과 함께 해당 지명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로 보내져 심의 및 결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국무총리 산하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일괄 심의, 결정하여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국회 제출, 공포, 관보 게재, 실무 작업단 구성에 이르는 절차를 따른다. 이때 지명의 규모와 행정적, 정치적 중요도에 따라 심의와 결정은 그 단계와 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¹⁴⁾

3) 복수지명과 소지명의 보호와 관리

이상의 명명 대상과 명명 기반에 따른 유형 분류와 지명 관리 방안에 한국 지명이 지닌 이중성과 다양성을 내재하고 있는 複數 및 경합 지명을 추가해야 한다. 복수 및 경합 지명이란 하나의 지리적 대상이나 장소를 두 개 이상의 지명이 지칭할 경우 여러 개로 공존하

는 지명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명 관리 업무는 표준화된 지명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그 외의 복수 지명과 경합 지명들은 표준화된 공식 지명에 밀려 소외받고 있다. 특히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2005, 8)에서 수행한 지명 표준화 편람 작업에서는 지명의 복수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명 표준화’라는 원칙하에 지명을 통일하여 특정 장소에 대한 이름을 공식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⁵⁾

지명의 통일성, 단일성, 표준성을 강화하고 지명을 동질화, 동일화, 중앙집권화 하려는 지명의 구심력(centrifugal force of place name)은 지명의 다양성과 고유성, 그리고 지방분권화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지명의 원심력(centripetal force of place name)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사례는 일찍부터 있어 왔다. 특히 1966~1986년의 20여년에 걸쳐 한글학회가 『한국지명총람』(총 18권)을 기획 및 간행하면서 존중했던 복수 지명과 경합 지명의 존재는 지명의 다양성과 사회성, 그리고 역동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귀중한 지리적, 언어적, 문화적 자산이다.¹⁶⁾ 이를 감안하여 현재 지명 표준화에 밀려 소외되거나 소멸되어가고 있는 복수 지명과 경합 지명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법적 차원의 보호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명에 대한 행정적·학술적인 수집과 조사, 그리고 제도적이고 법적인 지명 관리 단계에 이르는 모든 절차에서 표준 지명과 함께 복수 지명 및 경합 지명이 함께 병기되어 수록,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복수 지명 및 경합 지명에 대한 보존과 함께 고려해야 할 지명의 하나가 바로 비공식적인 小地名들이다. 법정동·리 혹은 행정동·리 단위 이하에 존재하면서 고령의 소수 지명 언중들에 의해 어렵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소 지명들은 소멸 이전에 광범위한 조사와 수집,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 대책이 시급하다. 소 지명은 복수 지명 및 경합 지명과 함께 학술적인 차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 장소성(placeness) 보존과 장소 마케팅(place marketing)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화 요소로서 지명의 다양성과 생산성을 담고 있는 귀중한 문화 유산이다.

5. 결론

지명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지리적 대상과 범위를 지칭하여 다른 대상과 구별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지명의 지시 기능은 단순히 대상을 지칭하는 수준을 넘어 지명을 명명하고 변형시킨 특정한 사회적 주체의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를 재현하면서 자아(self)의 지명과 지명 영역을 타자(other)의 그것으로부터 구별하는 기능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지시와 구별 기능에 앞서 지명 자체는 사회적 주체와 집단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언어적 요소이자 지리적, 문화적 요소이기도 하다. 하나의 지리적 사실이 자 동시에 언어 현상, 문화 요소인 지명에 대한 연구는 지리적, 언어적, 문화정치적 연구가 중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다학문적 영역인 것이다. 이로 인해 지명에 대한 지리적 연구는 지명에 내재된 언어적이고 문화정치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행정적,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지명의 유형 분류와 관리 방식은 지명이 지닌 언어적이고 문화정치적인 측면이 간과된 채 지리적인 시선을 기준으로 단선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학문적인 차원에서 존중되어야 할 지명의 본래 의미와 기능, 그에 따른 적절한 지명의 유형 분류가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명 유형 분류와 지명 관리가 안고 있는 한계를 진단한 후, 새로운 지명 유형 분류의 틀과 이를 기초로 한 지명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명 유형 분류와 관련하여 기존 지명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지명 유형 분류는 대체로 지명이 지닌 지리적이고 언어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전부 지명소와 후부 지명소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지명학계의 지명 유형에 기초하여 분류된 현행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유형은 지명이 지시하는 지리적인 명명 대상에 제한하여 구분되었다는 점과 지명 유형들 사이의 포함 관계가 뒤섞여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명이 지닌 언어적 측면, 특히 언어적 변천에 주목하여 분류한 언어적 변천에 따른 유형 분류는 국어학

계의 지명 연구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분류이다. 이 유형에는 언중들의 일상 언어생활에서 발생하는 표기 변화와 음운 변화, 이를 포함한 음차, 훈차, 혼음차, 받쳐적기법 등의 표기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이두식 표기 지명들이 해당한다. 언어적 변천에 따른 지명 유형은 사회적 주체들에 의해 자신들의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를 재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일정한 문화정치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끝으로 경합에 따른 유형 분류는 지명 경합과 영역 변동을 경험한 지명들이 포함된다. 특히 지명소의 경합과 통일 양상에 따라 경합 지명과 표기 방식 통일 지명이, 후부 지명소의 영역 변화에 따라 영역 확대 지명과 영역 축소 지명이 각각 해당된다. 경합에 따라 분류된 지명들은 지명들 간의 경합 양상과 여기에 작용한 권력관계에 의해 지명 영역이 변동되면서 일정한 문화정치적 접근을 허용한다. 한편 전부 지명소(명명 기반)와 언어적 변천 및 경합과 관련된 지명 유형 분류는 앞으로 지명 관리의 심층화와 선진화, 나아가 새로운 지명의 제정과 변경 시 고려할 수 있는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분류들이다.

선행 지명 유형 분류를 토대로 *THE NATIONAL ATLAS OF KOREA*(2007)의 지명 색인 분류를 검토한 결과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즉 색인 분류 유형의 대분류에 '행정지명', '자연지명', '인문지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동일한 지명이 여러 소분류 유형들에 중복되어 포함된 점, '자연지명'의 소분류 유형에 일정 분류 기준이 결여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명의 본래 의미와 기능이 현실적으로 고려될 《국가지도집》에 수록될 새로운 지명 색인 분류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지명 유형 분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동시에 지명의 행정적, 제도적 효율성을 감안한 새로운 유형 분류와 지명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지명 유형 분류와 관련하여 우선 지명을 명명 대상(후부 지명소)과 명명 기반(명명 유연성, 전부 지명소)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명명 대상(후부 지명소)에 따른 지명의 유형 분류를 다시 자연 지명과 인문 지명으로 하위 분류하였고, 자연 지명에는 지형 지명(산지 지명, 평야

지명, 하천 지명 등)과 해양 지명(해양 이름, 해안 지명, 해저 지명 등) 등을, 인문 지명에는 행정 지명과 인공 지명 등을 포함시켜 분류하였다. 둘째, 명명 기반(전부 지명소)에 따른 유형 분류에는 지명을 구성하는 지명소 중 전부 지명소가 지닌 성격에 따라 자연 지명과 인문 지명으로 하위분류하였다. 자연 지명에는 지형 지명, 기후 지명, 식생 지명, 토양 지명, 방위(위치) 지명 등이, 인문 지명에는 사회 이념적 지명, 역사적 지명, 경제적 지명 등으로 분류하였다.

지명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지명과 관련된 모든 법령의 조항에 해당 지명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 유형 분류를 명시해야 하고, 현재 각 정부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지명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지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상의 대안 제시와 함께 현재 지명 표준화에 밀려 소외되거나 소멸되어가고 있는 복수 및 경합 지명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차원의 보호, 그리고 법정 혹은 행정동·리 단위 이하에 분포하면서 소수의 지명 언중들에 의해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소 지명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수집,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

- 1) 일반적으로 땅이름을 뜻하는 지명은 행정적, 정치적, 학술적, 실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geographical name'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geographical name'을 세분하여 자연지명을 한정하여 지칭하는 'toponym'과 인문지명과 관련된 'place name', 그리고 해양의 중요성과 함께 부각되고 있는 'hydronym'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지명의 유형 분류와 관리를 연구한 본 논문에서는 지명이라는 용어를 '지리적 실체를 대상으로 한 모든 이름'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하여 설명하였다. 한편 국어학계에서는 지명이 지닌 언어적 측면을 강조하여 '지명'이란 용어 대신 '地名語'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 2) 사회적 관계와 제도, 그리고 공간과 장소의 의미와 구조를 둘러싼 투쟁의 영역으로 문화를 규정하는 신문화지리의 문화정치는 관계와 권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문화 생산의 주체는 누구이며 문화 생산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주목하는 문화지리학의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다. 특히 문화정치적인 지명 연구는 지명의 의미와 의미 생산을 둘러싼 상이한 사회적 주체들 사이의 갈등과 경합에 관심을 갖는다.
- 3) '地名 形態素'의 준말인 '지명소'는 '지명을 구성하는 의미 있는 최소 단위'를 뜻하는 용어로, 대체로 전부 지명소와 후부 지명소로 구분된다. 가령 2개의 형태소로 구성된 '절골(寺洞)'은 '절(寺)'이 前部 지명소, '골(洞)'이 후부 지명소가 되며, '한절골(大寺洞)'은 '한절(大寺)'이 전부 지명소, '골(洞)'이 후부 지명소가 된다. 그런데 '한절(大寺)'만을 다룰 때는 '한(大)'이 전부 지명소, '절(寺)'이 후부 지명소가 된다.
- 4) '地名의 有緣性'이란 지명이 발생하게 된 공간상의 특정한 사실과 현상이 음성과 문자 상태로 지명에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용어로 지명과 장소·공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뜻하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지명어(記號)의 형식(記號)과 내용(記意)사이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언어가 자의성으로 인해 기표와 기의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과는 달리 지명은 해당 지명이 지칭되거나 통용되는 범위, 즉 지명 영역 내의 자연적·인문적 속성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
- 5) 표기 방식 통일 지명들은 통일적인 표기 방식이 작동되는 지리적 스케일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이때 '통일적인 표기 방식을 작동시키거나 이에 저항하는 힘'은 Bakhtin(1975)이 언급한 언어의 '求心力과 遠心力'이란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첫째 국가적 스케일로 작동한 표기 방식 통일 지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통일신라 경덕왕 16년(757)에 행해졌던 2자식 한자 지명으로의 변화와 일제 시대인 1914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행정구역 통폐합과 이로 인한 지명 개정의 결과들이 해당된다. 이를 포함하여 국가적 스케일에서 작용한 지명의 구심력(centripetal force of place name) 사례는 한국의 지명 변천사에서 크게 일곱 차례가 발견된다. 국가적 스케일에서 명명된 구심적인 표기 방식 통일 지명은 중앙 정치 권력의 효율적인 국가 통치와 통제를 위한 목적으로 생성되었으며, 대체로 고유 지명의 발음과 의미를 보존하려 했던 초기의 지명 개정과는 달리 한자 본연의 의미에 집중된 제한적이고 통일적인 한자 지명으로의 개정이었다. 이로 인해 과거 한국의 다양했던 고유 지명을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형태로 변형시키게 된다. 둘째 지역적 스케일에서 작동한 표기 방식 통일 지명으로 하천 지명의 경합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하천에 분포하는 다양한 유역명이 특정 유역의 이름으로 대체되어 획일화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셋째 국지적 스케일에서 작동한 표기 방식 통일 지명의 사례로는 分洞된 촌락의 새로운 이름으로 기존 母村落에 쓰인 특정 표기자를 첨부하여 통일시키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는 해당 촌락에 거주하는 지배적인 사회적 주체의 의도에 의해 모촌과 모촌에서 분동된 子村의

지명 표기를 통일시키고 동일한 표기를 공유시켜 국지적 스케일에서의 지명 구식력을 행사한 경우로 분동된 촌락의 지명에서 다수 발견된다(Kim, 2009, 165-197).

- 6) 지명을 특정한 기준과 방식으로 통일시키고 획일화시키려는 경우와는 반대로 그러한 구식적 힘에 저항하고 표기 방식 통일 지명의 명명 방식과는 다른 형태로 지명 표기를 다양화시키려는 탈중심적인 원심적 지명이 존재한다. 원심적 지명으로는 ‘음란하고, 외설적이고, 상스러운’ 것들[자치벉골(紫芝洞) 등(현 충남 연기군 남면 갈운리)이나, 혹은 국가적 스케일의 구식적 지명이 추구하고자 했던 2차식 한자 지명의 표기 방식과는 달리 4자 이상의 표기를 고수하고 있는 고유 지명(현 충남 부여군 세도면 峯巖洞院里 등)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초치원, 신례원, 가수원, 광혜원, 장호원, 사리원’ 등과 같이 행정 단위를 지칭하는 후부 지명소를 제외하고 전부 지명소가 3자인 지명은 한국 지명에서 흔하지 않다. 특히 촌락 단위에서 나타나는 ‘반조원리’는 지명의 생성 년대가 삼국 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지명으로 『朝鮮地誌資料』(1911년)에는 ‘峯巖洞院津(諺文: 반조원진), 峯巖洞院里(반조원리)’(임천군 백암면 渡津名, 洞里村名 항목)로 기록되어 행정리로서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 7) 『국가지도집』에 수록된 지명 색인 분류 유형은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채택하고 있는 지명의 ‘일반적인 유형 분류(행정 지명, 자연 지명, 인문 지명)’에 토대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유형 분류가 학술적인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지명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 관리와 독자의 빠른 이해를 위해 국가지도집 지명 색인 유형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다. 단, 국토지리정보원이 채택하고 있는 ‘행정 지명’, ‘자연 지명’, ‘인문 지명’의 분류 유형은 해당 지명들이 지니고 있는 전·후부 지명소의 특성에 따라 명확하고 일정하게 하위분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분류를 하위분류할 일관성 있는 소분류 기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8)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2005)에서 정리한 지명 표준화 편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명 관련 행정체계가 지명을 크게 자연 지명, 행정 지명, 해양 지명 등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들 지명들에는 각각의 관련 법령들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해 소관부처를 나누어 관리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Yang and Jung, 2006, 74).
- 9) 이러한 분류는 전술한 바와 같이 The Korean Language Society(1967, 12; 1974, 1-2)의 지명어 유형 분류에서 기원한 것으로 이후 해양 지명이 추가된 것이다.
- 10)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2005, 7)에서 제시한 지명의 일반적 분류 유형으로는 행정 지명, 자연 지명, 해양 지명, 인공 지명이 있으며, 이러한 지명어 유형 분

류가 제도적으로 구분된 규정이 아님을 명시하였다. 행정 지명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 국토를 분할 구획한 경계를 일컫는 지명으로 행정 단위(시·군·구·읍·면·동·리)의 이름을 말한다. 현재 행정 지명은 약 2만개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명 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에 시·군·구·읍·면·동·리의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자연 지명은 개별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나 지역에 붙여진 이름으로 산·계곡·고개·골·꽃·나무·바위 등의 명칭을 뜻한다. 자연 지명은 약 15만개가 존재하며 현재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소관 업무를 맡고 있다. 자연 지명과 관련된 법적 규정과 절차는 측량법 제57조(지명)와 제58조(지명위원회), 측량법 시행령 제33조(지명의 고시), 제34조(중앙지명위원회의 구성), 제35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와 제41조(보고), 측량법 시행규칙 제29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지명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한 조례 제정 등이 있다. 해양 지명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海洋·海峽·灣·浦·水路 등의 이름과 礁·堆·海底峽谷·海底盆地·海底山·海底山脈·海嶺·海溝 등의 해저 지형의 이름을 뜻한다. 해양 지명은 현재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그 소관 업무를 맡고 있으며 해양 지명의 제정 및 변경 절차는 2004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해양지명 표준화를 위한 지침’의 제5, 6, 7, 8, 12, 13, 14조에 규정되어 있다. 해양 지명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수로업무법 제1장 제2조와 제5장, 수로업무법 시행령, 해양지명위원회의 운영 세칙 등이 있다. 행정 지명, 자연 지명, 해양 지명 외에 법률로 정한 특정 법령에 의해 관리, 운영되는 지명들로 인공 지명이 있다. 현재 인공 지명들은 공원(자연공원법), 고적(관광진흥법), 광산(광산법), 도로(도로법), 하천(하천법), 역명(철도법) 등의 개별법에 따라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다(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05, 7; Yang and Jung, 2006, 81-85).

- 11)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지난 2009년 5월 한국지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되었으며, 이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명 업무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의견과 대안이 일부 반영되어 지난 2009년 12월 10일부터 기존의 측량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측량 통합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지명 담당 조직은 지명(자연지명, 행정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 등 지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 국토해양부의 “국가지명위원회”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지명에 관한 업무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법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의 통폐합 및 구역 조정에 따른 조정 업무는 지방행정본부 자치제도팀이, 실제 조사 및 제정 건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측량 통합법

에서도 지명의 정의와 유형 분류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조항이 마련되지 않고 다만 지명의 결정(제91조 1항~6항), 해양지명 정의(2조 17항)만이 제시되고 있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명실상부한 지명 관련 업무의 통합된 주체로서의 '국무총리' 산하 국가지명위원회와 이 기관의 진정한 역할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 12) 2009년 12월 새로운 측량 통합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현재 모든 종류의 지명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학술적인 체계는 없다. 또한 자연 및 해양 지명과는 달리 행정 지명에 관한 제정 및 변경의 절차는 시도지사의 건의에 의해 행정안전부의 관계 부처에 의해 법률안이 작성된 후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국회에 제출되게 된다.
- 13) 일본식 지명들은 일제시대에 일본인 거류민들이 대거 거주하던 指定面, 邑, 府의 중심지에 분포하던 지명들을 말한다. 이 지명들은 당시 일본인들이 일본 内地에서 사용하던 지명 표기 방식, 즉 '~町~丁目'을 그대로 이식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大和町, 大正町, 昭和町, 本町, 旭町, 榮町 등은 여러 지역에서 빈도 높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일제 시대 일본인들에 의해 생성된 일본식 지명들은 대부분 해방 후인 1946~1947년 사이 '倭式 洞名 變更'에 의해 정리·소멸되었으며, '本町通' 같은 일부 지명들은 지금도 일부 지명 인증들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14) 이 과정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시·도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개체를 정례화하는 내용을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현재 지방자치단체 내의 상이한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지명업무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문화 관련 부서(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과 등)로 통일하여 설치하도록 조례로서 규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각 지방의 지명 자료가 최종적으로 수록되는 시·군지와 각종 지명 관련 문헌의 발간을 문화 관련 부서가 담당하고 있으며, 지명을 지리적, 언어적, 문화적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임의 부서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현재 지명업무 담당 부서가 다수 설치된 도시건설 관련 부서들은 부서의 특성 상 지명을 도시 계획 및 건설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인식하여 지명의 본래의 의미와 기능을 간과하거나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 지명 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Yang and Jung(2006, 87-89)에 제시되어 있다.
- 15) 한국 지명의 생성과 변천 과정은 세계에서 가장 심한 變異와 變形을 경험하였다. 한때 고유한 문자를 보유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중국 문명의 한자 문화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아온 한국의 역사적 경험은 한국인의 이중적 언어생활을 야기하였다. 여기에 한반도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와 영역은 역사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다양성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역사적 다양성과 복잡성은 한국 지명의 생성과 변천 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 결과 한국 지명에는 다양한 복수 지명과 경합 지명이 현재까지 공존해 오고 있는 것이다(Kim, 2009, 30-33).

- 16) 1960년대 당시 한글학회는 국가적 스케일로 기획된 지명 조사 작업을 시작하면서 한 장소를 지칭하는 둘 이상의 복수 지명과 경합 지명을 버리지 않고 모두 조사, 수집하여 문헌에 수록하였다. 일례로 "한 군데(조사 대상)의 이름이 둘 이상 있는 것도 다 올림말로 삼았다...이름이 둘 이상 있는 지명은 표준 지명을 정하여, 그 표준 지명에다가 풀이를 달고, 나머지 지명은 '·' 표를 하여 표준 지명으로 가서 그 유래나 말미를 알아보게 하였다...이름이 둘 이상 있는 지명에서는, 표준 지명 다음에 [] 표를 하여, 그 속에 속명을 낱낱이 적어 넣어 참고하게 하였다"와 같은 일정한 조사 및 집필 기준을 정하여 복수 및 경합 지명을 수집하여 남겨 놓았다(The Korean Language Society, 1974, 1).

참고문헌

- Bakhtin, M. M., 1975, *Voprosy literatury i Estetiki*, Khudozhestvennaja literatura, Moskva.
- Gang, G. B., 1997, *Place Names and Love for Korean Territory*, Jipmundang, Seoul (강길부, 1997, 땅 이름 국토사랑, 집문당, 서울).
- Jo, C. S., 2002, *A Study on Korean Place Names*, Social Science Press, Pyeongyang (조창선, 2002, 조선 지명연구,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 The Association of Korean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ers, 2008, *Geography of Place Name*, Purungil, Seoul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8, 지명의 지리학, 푸른길, 서울).
- Kim, J. S., 2005, A Study on natural village naming analyzed by external criteria, *Journal of the Place Name Society of Korea*, 11, 21-66 (in Korean).
- Kim, S. B., 2009, *A Study on the Cultural Politics of Place Names in Korea*, Ph.D.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im, Y. H., 1985, Research methodology of place names, *Gukyeo gungmunbak*, 3, 12-20 (in Korean).

- Lee, C. S., 1982,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s of place name (I), *Yeomun yeongu*, 35, 46-65 (in Korean).
- Lee, D. J., 1971, A comparative study on whereabouts and classification of place names, *The Collection of Dissertations Commemo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Language Society*, 281-315.
- Lee, H. G., 1986, *A Study on Place Names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 Nam, Y. W. and Seo, T. Y., 2004, *City and Territory of Korea*, Beopmunsa, Seoul (남영우 · 서태열, 2004, 도시와 국토, 법문사, 서울).
-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05, *Manual on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Suwon (국토지리정보원, 2005, 지명 표준화 편람,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수원).
-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07, *THE NATIONAL ATLAS OF KOREA*,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Suwon.
-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09, *THE GAZETTEER OF KOREA*,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Suwon.
-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09, *THE NATIONAL ATLAS OF KOREA*,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Suwon.
- Seong, H. J., 2006, Constituent of place-name in Korea, *Journal of the Place Name Society of Korea*, 12, 129-156 (in Korean).
- Sung, H. H., 2006, Activities on naming undersea featur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1(5), 600-622 (in Korean).
- The Korean Language Society, 1974, *The Pandect on Place Names in Korea 4(South Chungcheong Province)*, The Korean Language Society, Seoul (한글학회, 1974, 한국 지명 총람 4(충남편), 한글학회, 서울).
- The Korean Language Society, 1967, *The Pandect on Place Names in Korea*, The Korean Language Society, Seoul (한글학회, 1967, 한국 지명 총람, 한글학회, 서울).
- Toh, S. H., 2003. *The Place-Names of Korea*, Akanet, Seoul (도수희, 2003, 한국의 지명, 아카넷, 서울).
- Voloshinov, V. N., 1973, *Marxism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Seminar Press, New York and London.
- Yang, B. K. and Jung, C. Y., 2006, The administrative operation system of geographical names in Korea,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18(3), 73-90 (in Korean).
- 朝鮮地誌資料, 朝鮮總督府(1911).
- 朝鮮의聚落, 善生永助(1935).
- <http://www.land.go.kr/landName>
- <http://www.atlaskorea.org/historymap>
- 교신: 김순배, 363-791,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산 7번지,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gogeo@hanmail.net, 전화: 043-230-3616)
- Correspondence: Sun-Bae Kim,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an 7, Darak-ri, Gangnae-myeon, Cheongweon-gun, Chungbuk, 363-791, Korea (e-mail: gogeo@hanmail.net, phone: +82-43-230-3616)
- 최초투고일 2010. 1. 25
수정일 2010. 3. 1
최종접수일 2010. 4. 7